

# ‘한 방’의 힘...월간 최다승 이끌며 ‘판’을 뒤집다

KIA, ‘뜨거웠던 6월’ 25홈런 작렬...리그 1위

위즈덤 ‘6’·최형우 ‘4’·오선우 ‘3’...고른 타선, 파괴력 극대화 ‘중위권’ 팀타율, ‘최상위권’ 득점, ‘효율적 장타’로 반등 흐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6월 한 달간 뜨거운 방망이로 반등의 흐름을 만들었다.

리그 최다 홈런을 앞세운 장타력이 살아나며, 그 힘은 곧 상위권 도약의 발판이 됐다.

30일 기준, KIA의 6월 성적은 15승 7패 2무(승률 0.682). 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이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7위였던 순위는 어느새 4위까지 뛰어올랐다.

상승세의 주 원동력이 안정된 마운드였다면, 타선은 그 흐름에 불을 지폈다.

특히, 화력의 중심에는 ‘한 방’이 있었다. KIA는 6월 한 달간 홈런 25개를 몰아치며, 리그 최다 홈런 수를 기록했다. 2위 삼성(24개)보다 한 발 앞선 수치다.

다만, KIA는 삼성보다 2경기를 더 치른 터라 경기당 평균 홈런은 1.04개로 삼성(1.09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리그 팀당 평균(0.79개)을 크게 웃돌며, ‘한 방’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선수별로는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6홈런으로 타선을 이끌었고, 최형우가 4개, 오선

우가 3개를 기록했다. 윤도현·박찬호(각 2개)도 힘을 보탤 것이며, 김석환·이창진·김규상·고종욱·박민 등 백업 자원들도 고르게 홈런포를 가동했다.

중심 타선에서만 터진 결과가 아니라, 접에서 타선 전체의 파괴력이 더욱 돋보인다.

여기에 6월 25개의 홈런은 올 시즌 월간 기준 최다 수치다. 3월 13개(경기당 1.63개·1위), 4월 15개(0.68개·6위), 5월 19개(0.76개·4위)로 이어진 페이스는 6월 들어 절정에 달했다.

경기 흐름을 흔드는 한 방의 위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평가다.

이 힘은 곧 실질적인 득점력으로 이어졌다. 6월 한 달간 KIA는 팀 득점 129점, 타점 117개를 기록하며 두 부문 모두 리그 최다를 찍었다.

세부 지표에서도 반등은 확인된다. 장타율은 0.423, OPS는 0.776으로 모두 리그 1위. 전달(6월) 장타율 0.375, OPS 0.704(이상 리그 6위)와 비교해 확실한 상승세다.

6월 팀 타율(0.271)은 공동 5위에 해당하지만, 적은 기회에서 큰 점수를 만드는 ‘한 방’



위즈덤

이 돋보였던 한 달이었다.

즉, ‘많이 맞는’ 팀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맞는’ 팀의 색깔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상승세는 일시적인 반짝임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장타 기반 위에 홈런 생산이 집중되며 공격 효율이 극대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성과는 중심 타선과 백업 자원의 조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최형우

크다.

KIA는 올 시즌 김도영 등 주축 선수들의 대거 부상 이탈로, 이른바 ‘잇몸 야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형우와 위즈덤이 변함없는 활약으로 축을 지탱하고, 백업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몫을 해내며 전체 타선의 힘을 끌어올렸다. 완전히 않은 전력 속에서도 경기양상을 바꾸는 ‘킬샷’ 능력을 발휘하며, 팀 전



오선우

체에 자신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후반기엔 주전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KIA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7월은 전반기 마무리 짓는 마지막 고비이자,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둔 전환점이다. 호랑이 군단의 방망이가 지금의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후반기 판도 역시 요동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 “우승 가는 길...‘복병’ 울산 넘어라”



광주FC가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에 도전한다. 광주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노희동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을 앞세워 4-3으로 승리하며 8강에 안착했다.

이정호 감독은 그간 시즌 초부터 이어진 숨겨진 일정을 고려해 코리아컵 경기에서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했던 이정호 감독의 묘수는 적중했다. 광주는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순항하며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코리아컵의 경우 정상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만 같았다.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다. 직전 3번의 리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나날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특히 고민이 많던 최정방에선 2경기 연속 멀티 득점이 나왔다. 아사나, 헤이스, 박인혁, 정지훈 등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물 오른 상황이다.

반면 지난 6월,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리그

광주FC,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도전...오늘 홈 울산戰 ‘총력 승부’



지난 5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4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광주FC 선수단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던 울산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며 원지 않았던 결과를 받아들여게 됐다.

게다가 28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끝으로 공식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작년 코리아컵에서 구단 최초로 4강에 진출했던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아쉽게 고배를 마시며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기억이 있다. 2년 연속 코리아컵 무대에서 마주치게 된

울산을 상대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광주는 다시 한번 4강에 진출해 기쁨과 우승까지 나아가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울산과의 코리아컵 8강전은 총력전을 펼칠 생각이다. 마침, 이 경기가 끝난 후 A매치 기간으로 인해 2-3주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만큼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행복나눔교실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광주시체육회, 연말까지 13개소서 11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행복나눔 프로그램은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행

복나눔교실은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예산을 매칭해 확대 추진된다.

운영 종목은 ▲검도(방림검도장) ▲골프(gp 생활체육) ▲배구(성덕초) ▲방송댄스(동구 청소년수련관) ▲빙상(염주실내빙상장) ▲스쿼시(체육회관 스쿼시장) ▲축구(양산초, 월곡초, 소태꽃살장) ▲클라이밍(랜드워크클라이밍 양산점) ▲탁구(송정다누리센터) ▲티볼(일곡초) ▲펜싱(포인트펜싱클럽)으로 총 11

개 종목 13개소에서 운영한다. 선정된 종목에는 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지도자를 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용품 등을 지원해 운영하며, 사업이 끝난 후에는 용품을 해당 시설(학교)에 기증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행복나눔교실을 통해 스포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체육활동을 체험하는 등 평생 체육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스포츠도 복지인 만큼 계층과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잘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서석중 옥하준, 회장기 검도 개인전 우승

올시즌 2관왕...청소년 대표 선발

서석중 옥하준(3학년)이 제34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에서 남중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옥하준은 지난달 29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사공민찬(성남중)과 연장 접전 끝에 결정적인 허리치기로 1대 0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옥하준은 이재준(부원중), 정하람(가야중), 유지우(주성중), 이상엽(동평중)을 연파하며 8강에 진출, 김민상(상인천중)을 2-1로 꺾고 준결승전에 안착했다.

옥하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5월 제28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올 시즌 SBS검도왕대회 개인 3위, 대통령기 전국대회 개인 3위에 이어 2025년 검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까지 이어지는 활약을 펼치며 중등부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옥하준은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주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서석



제34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남중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옥하준이 최홍훈 유망학원 이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중은 올해 전국 주요 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을 달성했으며, 옥하준은 팀의 중심축으로 활약했다.

옥하준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땀 흘린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전국대회에서도 광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 전남도체육회, 스포츠클럽 국비 1억4천만원 추가 확보

도내 3개 클럽, 8개 프로그램 선정

전남도체육회가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1억4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일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부터 공모한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추가 공모’에 도내 3개 지정스포츠클럽 신청한 8개 프로그램이 모두 선정돼 총 1억4천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기존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확보된 예산은 전문선수반의 경우 2개 클럽에 총 5천만원, 특화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에 총 9천만원이 지원된다.

목포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반(축구) 1개와 특화프로그램(지역특화, 취약계층, 기타) 3개

등 총 4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총 7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강진군 청자FC클럽은 전문선수반(축구) 1개, 특화프로그램(학교연계형, 취약계층) 2개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5천500만 원을, 여수공공테니스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종목에서 특화프로그램(기타) 1개가 선정돼 1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간 연계로 스포츠클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